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을 맞아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새해를 향한 소망과 비전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득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1 - 성탄절 감사와 찬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탄절 시즌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여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오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고백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단순히 일회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 - 한 해 마무리와 감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때로는 험난한 산길을 걸어왔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일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시험과 유혹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든 성취와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들도 주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3 -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는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함이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3)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총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함과 충성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직장, 학업과 사업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공급과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4 - 새해 소망과 비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8)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지혜로운 해결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이 하루빨리 끝나고, 모든 민족이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들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존하며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2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5 -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만민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고,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사역지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지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루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박해로 인한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복음 전파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더욱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신다면, [더 자세한 주일 예배 정보와 기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